

17世紀 禮訟 研究의 現況과 反省

李 迎 春*

• 目 次 •

- | | |
|---------------------|-------------------|
| I. 序 | IV. 禮訟 研究의 方向과 課題 |
| II. 禮訟의 性格과 政治史의 意義 | V. 結 |
| III. 禮訟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 |

I. 序

조선중기 顯宗代에 王室의 服制 문제를 두고 일어났던 두 차례의 禮訟은 그 자체가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갖는 보다 중요한 의의는 이를 계기로 일어나게 된 조선중기 정치사의 성격 변화에 있다고 하겠다. 즉 肅宗代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혹심한 換局들은 바로 禮訟으로 인해 고조되고 축적되었던 당파간의 질서와 협곡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換局은 반대 당의 존재를 용납치 않게 되었고, 결국 一黨專制의 정치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宣祖代 이후 부단히 추구되어 왔고 仁祖反正 이후에 안정되어가기 시작했던 士林政治의 틀, 곧 다수 정파의 상호공존과 견제·비판의 원리 위에 운영되고 있었던 하나의 이상적인 정치구도¹⁾가 붕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禮訟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조선중기 정치사의 변질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禮訟은 조선중기 정치사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禮訟은 또한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性理學의 학문적 성향이나 학파간의 대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그 일부라고 할 수 있는 禮學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禮訟의 기초가 된 諸家의 禮學과 禮論은 韓國哲學史 혹은 儒學史에서도 중요한 대목을 이루고 있다. 禮訟의 파급 효과는 社會史·經濟史 혹은 文學史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는 조선후기의 美術史에 까지도 그 영향이 거론되고 있다.²⁾

* 國史編纂委員會

1) 이러한 士林政治의 운영 형태를 근자에는 ‘朋黨政治’라고 부르게 되었다.

李泰鎮 外,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汎潮社, 1985) 참조.

2) 崔完秀, 〈秋史書派考〉(『偶松文華』 19,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0)

禮訟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학계에서나 그 인접학문에 있어서나,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부진은 조선시대 정치사 전반에 걸친 관심의 결여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禮訟은 한국사의 한 치부로 인식되어 상당 기간 학계에서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그러한 심리적 환경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禮訟은 어려운 禮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논쟁이 대단히 복잡하여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이 주제가 갖는 여러가지 미묘한 성격들 때문에 좀처럼 만족스러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政治史와 哲學史(儒學史)의 분야에서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동시에 약간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반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적당한 연구 과제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재검토 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II. 禮訟의 性格과 歷史的 意義

研究史의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禮訟의 성격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본다.

禮訟은 일반적으로 黨爭史의 전과정에서 가장 극적이고 치열한 정쟁의 하나로, 또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리공담적 소모적 논쟁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禮訟은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예로부터 조선후기 정치의 퇴폐적 행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붕당간의 정치투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黨爭’이라고 하면 ‘禮訟’을, ‘禮訟’이라고 하면 ‘黨爭’을 연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충분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禮訟은 물론 조선시대 黨爭史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정치사에 일대 轉機를 가져온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일반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성격을 가진 西人—南人의 정치 투쟁만은 아니었다.

禮訟은 물론 黨爭의 성격을 차치하고 논의될 수 없지만 여기에는 黨爭構圖 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하고도 미묘한 성격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³⁾ 근래에 이르러 黨爭史에 대한 연구가 진척 되면서 이 禮訟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서 이제 17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禮訟이 종래의

3) 拙稿, 〈禮訟의 黨爭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사소한 의전문제로 야기된 저속한 政爭’이라는 편견을 벗어나게 되어, 이것이 조선시대 政治史·思想史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고, 또 당대의 학자·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활을 걸고 싸울만한 의리 명분의 문제였으며, 王家의 정통성 시비와 관련된 위험한 학문적 논쟁이 정치문제로 비화한 사건으로써, 그것이 士林政治의 이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이념투쟁일 수도 있다는 등의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⁴⁾

〈慈懿大妃 服制 禮訟(禮論) 概況〉

구 분	服의 대상	관계	服의 종류	論 理	根 據	主 論 者	同 調 者	採 擇
第一次禮訟 : 己亥禮訟 1959-1660	孝宗	아들	三年 斬衰 : 國王	天王皆斬	「周禮」	尹鑑		
			三年 齋衰 : 長子	次長子論	「儀禮註疏」	許穆, 尹善道 元斗杓	權謨, 金佐明 金壽弘	
			暮年 古禮 : 庶子	體而不正	「儀禮註疏」	宋時烈, 宋浚 吉, 李維泰		
			暮年 國制 : 아들	長衆不辨	「大明律」, 「經國大典」	鄭太和, 李景 奭, 沈之遠	許積	○
第二次禮訟 : 甲寅禮訟 1674	仁宣 王后 (孝宗 妃)	자부	齋衰暮年 : 長子婦	次長子論	「大明律」, 「經國大典」	都愼徵, 顯宗, 金錫胄	三福, 金佐明	○
			大功 : 衆子婦	體而不正	「儀禮註疏」	金壽興, 閔維 重, 金萬基 등	宋時烈	
乙卯禮論 1675	顯宗	손자	斬衰	天王皆斬	「周禮」	尹鑑 肅宗		
			暮年	承重長孫	「經國大典」	許穆, 許積, 權大運		○

禮訟의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孝宗을 仁祖의 長子로 볼 것인가 차자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는 쌍방이 다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宋時烈, 宋浚吉 등은 孝宗을 출생순서 그대로 차자(衆子)라고 인식하고 심지어는 그를 庶子라고 하여 해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왕실의 종통 계승자라는 孝宗의 특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士庶人들의 경우와 보편시한 것이었다. 許穆, 尹善道 등은 종통 계승자라는 특수성을 들어 그를 仁祖의 嫡長子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되었던 것이 「儀禮」 賈公彥疏인 “第一子死 則

4) 池斗煥, 〈朝鮮後期 禮訟研究〉(「釜大史學」 11, 1987)

取嫡妻所生第二長子 立之 亦命長子”라는 구절이었다. 尹鑰는 孝宗이 宗統의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일국의 국왕이었다는 신분을 강조하여 母后를 비롯 모든 사람이 斬衰를 입어야 한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周禮」의 ‘天王皆斬’ 이론에 의한 것이었다. 왕실 전례의 특수성을 극도로 강조한 것이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경우에 어떤 禮法을 전거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왕실의 전례는 당연히 祖宗의 예법인 「國朝五禮儀」를 따라야 했으나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母后가 嗣王을 위해 입는 服의 규정이 없었다.⁵⁾ 문제는 여기에서 야기되었다. 「國朝五禮儀」에 없는 사항은 「經國大典」이나 「大明律」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는 長子와 次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暮年服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당시에 鄭太和 등의 건의로 채택된 ‘國制暮年服’이었다. 이는 孝宗의 長子·衆子 신분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었다. 『大明律』은 明 나라의 현행법으로서 時王之制라는 권위가 있었고, 『經國大典』은 역시 조종의 성헌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經國大典』 「禮傳」 五服條의 복제 규정은 실상 왕실의 전례가 아니라 일반 臣民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이었고, 『大明律』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大明律」은 형률을 규정한 책인데 여기서 ‘喪服圖’를 붙여놓은 것은 실상 죄인에 대한 연좌를 적용을 위한 친족의 원근·친소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왕실의 전례에 이러한 사서인의 예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禮法의 최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禮儀」에 주목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長子에 대하여는 齋衰 3년(아버지는 斬衰), 衆子에게는 齋衰 暮年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朱子の 「家禮」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禮儀」의 斬衰章의 賈疏에는 承重을 했더라도 아버지가 斬衰를 입지 않는 예외규정 4가지, 이른바 四種說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體而不正 庶子承重也’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庶子’의 해석이 또 문제가 되었는데, 宋時烈 등은 이를 ‘衆子’로, 許穆 등은 이를 ‘妾子’로 설명하였다. 「禮儀」의 註疏 자체에서도 이를 두 가지의 경우로 사용하고 있었다. ‘庶子’를 妾子로 볼 경우에는 四種說이 孝宗과는 무관한 것으로 되어 3년복을 입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를 ‘衆子’로 볼 경우에는 孝宗이 이에 해당하여 3년복을 입을 수 없게 된다. 피차의 주장은 모두 일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논쟁은 끝없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양측의 상이한 인식과 논리의 차이에는 17세기에 조선의 禮學이 심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두 종류의 禮學 경향, 특히 帝王家の 전례에 대한 판이한 두 입장의 차이가 깔려있었다. 그 하나는 帝王家の 禮도 원칙적으로 士庶人들의 禮와 다를 바 없는 보편성을 갖는다는 관념이며, 또 하나는 帝王家の 禮는 사서인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고유성을 갖는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宋時烈 등의 暮年說

5) 다만 「國朝五禮儀」에는 國王의 喪에 斬衰가 원칙이 되어 대부분의 親屬과 臣民들이 斬衰를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은 전자를 반영하는 것이며 尹鑑와 許穆의 三年說은 후자를 반영한 것이다. 禮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중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性理學과 「家禮」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帝王禮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고전유학과 왕조례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禮訟은 禮學의 시각 차이에 의한 학문적 논쟁으로 진행되었으나, 여기에 내포된 하나의 禁忌事項 곧 孝宗의 정통성 시비가 촉발되면서 위험한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尹善道에 의해 孝宗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격을 받은 西人들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 때문에 尹善道와 그에 동조한 南人들에 대해 정치적 숙청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南人들의 감정을 격화시키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朝廷은 각기 君子-小人으로 분별하고 배척하는 각박한 黑白論理가 팽배하게 되어, 서로 견제 비판하며 공존을 인정하던 풍토는 사라지고, 결국 第二次禮訟 이후 수차례의 換局을 거쳐 일당전제의 추세로 나아가게 되었다.

III. 禮訟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禮訟’을 주제로 한 역사학계의 연구 논문은 대략 다음 6편을 들 수 있다.

- (1) 黃元九, 〈所謂 己亥服制 문제에 대하여〉(「延世論叢」 社會科學篇 2, 1963)
* 改題 〈己亥服制論案始末〉(「東亞細亞史研究」, 一潮閣, 1981)
- (2) 池斗煥, 〈朝鮮後期 禮訟研究〉(「釜大史學」 11, 1987)
- (3) 鄭玉子, 〈17世紀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韓國文化」 10, 1989)
- (4) 李迎春, 〈第一次禮訟과 尹善道の 禮論〉(「清溪史學」 6, 1989)
- (5) 李迎春, 〈服制禮訟과 政局變動 - 第二次禮訟을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22, 國史編纂委員會, 1991)
- (6) 李成茂, 〈17世紀의 禮論과 黨爭〉(「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이를 보면 韓國史學界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 禮訟에 대해 오직 한편의 연구 논문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주제가 얼마나 소홀히 인식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나온 두 편의 黨爭史 관계 개설서⁶⁾에서 禮訟 문제를 상당 분량 기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대체로 전래의 「燃藜室記述」이나 「黨議通略」의 이해 수준을 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사학계에서 禮訟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 국사학의 인접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韓國哲學史(儒學史)의 일부로

6) 成樂重, 「韓國黨爭史」(韓國文化史大系」 2, 高麗大學校 亞細亞文化研究所, 1965)
姜周鎮, 「李朝黨爭史 研究」(서울大出版部, 1971)

서 혹은 漢文學史 내지 인물 연구의 일환으로 禮訟과 관련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柳正東, 〈禮訟의 諸學派와 그 論爭〉(「韓國哲學史 研究」(中), 東明社, 1978)
- ② 鄭玉子, 〈眉叟 許穆 研究〉(「韓國史論」 5, 서울大學校人文大學國史學科, 1979)
- ③ 鄭仁在, 〈尹白湖의 禮論과 倫理思想〉(「現代社會와 倫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④ 裴相賢, 〈尤菴 宋時烈的 禮學攷〉(「尤菴思想研究論叢」, 斯文學會, 1992)
* 〈朝鮮朝 畿湖學派의 禮學思想에 關한 研究〉(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의 일부.
- ⑤ 許捲洙, 「17世紀 文廟從祀와 禮訟에 關한 研究」(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 「朝鮮後期 南人과 西人의 學問的 對立」(法仁文化社, 1993)
- ⑥ 李迎春, 〈服制禮訟과 眉叟 許穆의 禮論〉(「韓國宗教思想의 再照明 - 震山 韓基斗 博士 華甲紀念論叢 -」, 圓光大學校出版部, 1993)
- ⑦ 劉英禧, 〈白湖 尹鐔 思想 研究〉(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이상의 연구는 禮訟 그 자체가 연구의 목적이 아니었거나 역사학의 관점에서 論究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事實의 이해가 소략하고 문제의 인식에 미비함이 있으나, 사상사적 배경 혹은 禮學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儒學史의 연구도 겨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시작되었으나 인물 연구 내지 개별 학자들의 禮論 연구가 중심이 되어 그 수에 있어서는 역사 논문보다 많은 편이라 하겠다. 儒學史 관계의 연구에는 玄相允의 선구적인 개설서⁷⁾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문 연구와 관련 연구물의 수가 다 합쳐서 10여편을 조금 넘는 이러한 형편에서, 연구사를 검토한다는 것마저 사실 불필요한 설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禮訟은 조선중기 정치사의 체계화를 위해 반드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록 미약한 연구 성과 이기는 하지만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다소의 문제점들을 노정하기도 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한번쯤 반성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黃元九 교수의 (1)논문은 禮訟에 대한 연구의 효시로서, 1659년의 己亥禮訟에서부터 1674년의 甲寅禮訟에 이르기까지의 禮論과 여기에 결부된 정치적 사건들을 통괄하여 서술한 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實錄」의 자료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실증적 연구로서 이전의 개설서가 「燃藜室記述」이나 「黨議通略」류의 야사류나 문집류의 자료에 의지했던 것에 비하면 禮訟의 이해에 차원을 높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 후의 禮訟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7) 玄相允, 「朝鮮儒學史」(民衆書館, 1949)

표준이 되어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불모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의 착오와 典據의 미확인과 같은 결함들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暮年說과 三年說의 禮論 차이의 원리로 예의 本質論(不變性)과 行用論(可變性)으로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宋時烈의 예관념은 예의 본질론(불변성)에 입각하여 있었고, 尹鑄의 예 관념은 예의 행용론(가변성)에 치중해 있었다는 것이다. 禮訟은 결국 이러한 예 관념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빚어졌다는 것이다.⁸⁾ 여기서 단순대비한 宋時烈의 본질론과 尹鑄의 행용론은 얼른 납득되지 않으나, 예의 불변성 강조와 예의 가변성 치중이라는 공식은 마치 西人 禮學과 南人 禮學의 본질적인 성격 차이인 것처럼 이해되어 후속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원리론적 이해는 설득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는 대체로 西-南 양편의 禮論과 정쟁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설명하고 있어 禮訟 연구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禮訟이 처음에는 학문적 논쟁으로 시작하여 당론으로 발전되어 간 것으로 서술한 것도 온전한 이해로 생각된다.

池斗煥 교수의 <朝鮮後期 禮訟研究>('釜大史學' 11, 1987)는 한국사학계에서는 (1)의 논문 이후 4반세기 만에 나온 연구로서 최근의 禮訟 연구를 부활시키고 촉진시킨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 연구는 1645년의 孝宗의 世子冊封에서부터 시작하여 肅宗初의 換局時期까지의 정치사를 통론하면서, 禮訟을 退溪學派와 栗谷學派의 形而上學(理氣說)의 구조에 기초한 봉당정치기 사립정치의 이념투쟁으로, 심지어는 이것을 사회·경제적인 이념으로까지 추구한 거창한 연구이다. 이러한 이해의 체계나 연구의 접근 방법은 종래의 연구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것으로 역사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본 논문의 요지는, 西人의 暮年說은 '天下同體'를 표방하여 孝宗에게 종법을 원리대로 시행하고자 한 것이며 南人의 三年說은 종법을 변칙적으로 적용하거나 부정하는 논리로 이해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 栗谷學派와 신분적 차별을 인정한 退溪學派의 학문적 성향에 기인한 것인 바, 전자는 '理通氣局'說에 의해 理의 불변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신분적 평등원칙을 확인하고 天理=宗法을 왕가에도 시행하고자 한 반면, 후자는 '理氣互發'說에 의해 理의 가변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신분적 차별을 인정하여 왕가에서는 종법을 변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西人들은 戶布法 등 서민들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고 南人들은 양반의 특권 유지를 위해 그것을 반대한 바, 禮訟은 실상 이러한 理氣論의 철학체계의 차이에서 근원한 이상사회건설을 위한 정책 구현의 이념투쟁이란 것이다.

8) 黃元九, <己亥服制論案始末>('東亞細亞研究', 一潮閣, 1981) pp. 84-85.

본 연구의 기초 논리인 西人들의 중법의 원칙 고수와 南人들의 변칙 적용이라는 비교의 도식은 (1)논문의 본질론(불변성)과 행용론(가변성)의 대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나치게 이론의 구성에 치중한 나머지 역사적 사실들을 자의적으로 구성·배열하여 편파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⁹⁾ 또 이 이론의 핵심이 된 율곡과 퇴계의 형이상학(이기론)적 성격 차이라는 것도, 양자의 理氣哲學에 대한 이해의 오류에서 온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¹⁰⁾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의 해석과 표현 방법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鄭玉子 교수의 <17世紀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韓國文化' 10, 1989)은 17세기 朝鮮 思想界의 동향을 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禮論의 사상적 기초를 구명해 보려는 시도에서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 역시 17세기의 정치와 학문 사상을 통론하면서 하나의 이론체계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파의 母集團을 학파(퇴계학파-율곡학파)에 두고, 그들의 禮論을 禮論→禮學→禮書→禮訟→禮治의 관계 구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필자의 拙稿 두편은 禮訟 전체를 통론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의 구체적인 사건을 집중 분석·검토하는 작업이었다. 拙稿 (4)는 1660년의 尹善道 상소의 배경과 그 정치적 작용을, 拙稿 (5)는 1674년의 第二次禮訟과 그 전후의 정치적 동향을 검토한 것이다. 전자에서는 禮訟의 禮學的 배경과 尹善道 상소의 정치사적 의미 탐색에 역점을 두었다. 禮訟의 학문적 배경으로는 당시 禮學界의 두 경향을 '普遍主義'와 '分別主義'란 이름으로 그 경향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의 지칭과 방법론은 곧 지나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¹²⁾ 후자에서는 第二次禮訟의 분쟁 구도를 종래의 南人: 西人 당론 대결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이것이 왕실세력(외척 포함)과 西人 집권세력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李成茂 교수의 <17世紀의 禮論과 黨爭>('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은 仁祖代의 啓運宮服制 및 元宗追崇 禮論과 顯宗代의 두 차례 禮訟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는 「實錄」을 비롯한 여러 사료를 폭 넓게 섭렵하여 실증에 주력하였고, 또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현

9) 拙稿, <禮訟의 黨爭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pp. 473-474.

10) 劉英燮, <白湖 尹鑰 思想 研究>(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pp. 145-146.

11) 이 논문에서 "주자 性理學의 핵심은 宗法", "「經國大典」의 宗法은 변형된 것", "沙溪의 「家禮輯覽」이 저술되면서 그것이 「經國大典」의 宗法體制를 대신하였다", "척화파의 지지를 받는 昭顯世子가 친청파인 金自點에게 독살되었다", "尹善道는 병자호란 때 피난하였다", "兩班戶布論은 土林의 公論", "禮訟은 北伐論을 대신한 大義名分論", "顯宗 6년의 禮訟 논의 중단은 昭顯世子 아들의 죽음 때문", "栗谷 - 金長生 - 宋時烈로 이어지는 학통은 純正性理學者", "1차禮訟을 구실로 정권을 장악하려던 南人"과 같은 표현은 모두 근거가 명확치 않거나 편향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12) 高英律, <朝鮮 中期 禮說과 禮書>(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論文, 1992) pp. 188-191

단계에서 禮訟에 관한 표준적인 이해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服喪問題 등에 얽힌 시비를 文治主義 士林政治에서 나타나는 권력투쟁의 한 양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禮訟은 조선시대와 같은 유교적 문치주의 국가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정치 운영 방법이며, 이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권력투쟁의 정치행태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접학문의 연구 중에는 韓國儒學史 관계 연구로서 柳正東 교수의 ① 논문 〈禮訟의 諸學派와 그 論爭〉이 효시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玄相允의 「朝鮮儒學史」에서 제시한 韓國儒學의 발달 단계, 즉 ① 經史·詞章 → ② 至治主義儒學 → ③ 性理學 → ④ 禮學 → ⑤ 實學 중에서 禮學의 단계를 정립키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禮訟을 통해 禮學의 諸學派 분류와 그들 禮論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성격상 자세한 사실의 기술과 근거 자료의 제시가 미비하지만, 禮訟의 핵심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본래 논문이 의도하였던 禮學의 학파로서의 성격 정립에는 회의적이 되었고, 그것이 피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정세에 편승된 채 악순환을 거듭하여 학적인 문제 규명을 위한 派라기 보다는 政爭의 偏黨과 같은 인상을 띠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아직도 禮訟에 대한 종래의 편견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인접학문에서의 연구는 주로 인물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 중에서 尹鑰의 禮論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鄭仁在 교수의 ③ 논문과 劉英嬉 씨의 ⑦ 논문이 특히 주목된다. 尹鑰는 宋時烈 등의 暮年說에 최초로 이의를 제기하여 논쟁을 유발한 인물이며, 그의 ‘天王皆斬’說은 帝王禮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으로¹³⁾ 당시 미약했던 왕권을 강화코자 하는 의도를 띤 것이기도 하였다. 尹鑰의 禮論은 許穆과 尹善道の 禮論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그의 禮學과 禮論에 대한 이해는 禮訟의 연구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겠는데, 위의 두 연구는 그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서 개괄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鄭仁在 교수는 위의 연구에서 宋時烈과 尹鑰의 禮論을 비교 검토한 결과, 양인의 논쟁이 名 즉 概念을 달리 쓴 데서 생긴 것으로, 이것은 黨爭 이전의 개념 논쟁이었음을 지적해 내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것이 四七論爭, 人物性同異論 못지 않는 순수한 학술적인 욕구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윤리적인 동기에서 생긴 철학적 논쟁이었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지적은 한국사 연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의 논문들은 대개 漢文學史의 일부 혹은 개인의 學術에 대한 관심에서 연구된 것으로, 禮訟의 이해에 다방면으로 참고가 되기는 하나 각기 政治史的 혹은 思想史的 안목의 결여에서 오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논문들은 모두 禮訟의 이해 증진에 일정한 기여를 하

13) 尹鑰의 ‘天王皆斬’說에 의한 斬衰論은 후일 茶山 丁若鏞의 지지를 받았다. (『與猶堂全書』 제3집 권12, 34b-45b 「正體傳重辨 三」)

14) 鄭仁在, 〈尹白湖의 禮論과 倫理思想〉(『現代社會와 倫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p. 67-68.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공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내용상의 착오와 결함 혹은 연구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오나 자주 범하고 있는 실수들을 지적해 본다.

첫째, 기초적인 사시들에 대한 오해와 부정확한 기술, 혹은 전거 상의 부실 등을 들어 본다.

(1)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른바 國制基年說의 출전을 「國朝五禮儀」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經國大典」의 잘못이다. 사실 己亥禮訟은 「國朝五禮儀」에 바로 이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또 “時王之制”를 「國朝五禮儀」로 오해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大明律」을 말하는 것이다. 실상 「實錄」의 당시 기사들 중에도 간혹 이들 전거를 혼동한 경우도 있다.

(2) 몇몇 연구에서 昭顯世子の 喪에 慈懿大妃가 昭顯世子를 위하여 長子の 禮로서, 三年喪을 입었다고 하였으나, 이 때 慈懿大妃가 基年服을 입었다.

(3) 출전 근거에서 「儀禮」의 注와 疏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

(4) 몇몇 논문에서 “外宗猶內宗”과 “武王臣文母”說의 출전 근거를 모두 「儀禮注疏」로 錯誤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각기 「禮記」 卷20 「雜記 下」와 「論語」 卷8 「太伯」 “武王曰予有治臣十人”의 註說이다.

(5) 일부 논문에서 「實錄」 중 “是時君臣皆以穆言爲不易之正論 而恐見忤於時議 無一人論辯而終不行其說 識者莫不痛恨焉”라는 기사를 許穆의 疏에 대한 顯宗의 答辭라고 하였으나, 이는 史官들이 쓴 논평이다.

(6) 肅宗 원년 8월에 尹鑄가 상소하여 慈懿大妃의 복을 斬衰 삼년으로 追正 하자는 疏는 손자인 顯宗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乙卯禮論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는 제1·2차 禮訟과는 다른 문제임에도 이것이 마치 己亥禮訟의 연장인 것처럼 기술한 경우도 있다.

(7) 일부 연구에서 南人들의 三年說은 「儀禮」에 근거한 것이며 西人들의 基年說은 「家禮」에 근거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들은 실상 모두가 같은 「儀禮」의 疏說을 논거로 하였던 것이다. 다만 西人은 「大明律」과 「經國大典」을 보조근거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家禮」는 이 논쟁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長·衆子服의 대목에 관한 한 「儀禮」와 「家禮」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많은 논문에서 소위 “卑主貳宗”說이란 것을 尹善道가 제기한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이는 실상 尹鑄가 처음 발설한 말이었다. 또 이는 南人들이 宋時烈的 禮說에 대해 비난한 논평이었을 뿐인데, 이것이 마치 三年說의 핵심 내용인 것처럼 설명한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9) 많은 연구에서 原典의 번역이 정확치 않은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庶子不得爲長子三年”(「儀禮注疏」)을 “庶子は 長子の 三年喪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庶子(적장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長子를 위해 三年服을 입을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禮訟의 전반적 성격에 대하여 아직도 전통적인 편견과 편파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러하다.

(1) 禮訟은 孝宗의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에서 비롯된 禮學的 논쟁으로 발단 전개되었던 사건이었는데, 이를 처음부터 당파간의 집단적 정쟁으로 보는 편견이 남아 있다. 禮訟에는 물론 정치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 시초에는 학문적 견해와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학술 논쟁적 성격이 주가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第一次禮訟과 第二次禮訟을 단순히 반복적 논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두 사건은 물론 같은 주제와 논리로 인해 야기되고 진행되었던 것이지만, 그것은 똑같은 사건의 연장이나 반복은 아니었다. 第二次禮訟의 주체는 南人과 西人이 아니라 왕실측과 서인 관료들로서 이는 마치 宮中과 府中의 대결과 같은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실제로 第二次禮訟에는 南人들이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禮訟 전체를 南人과 西人의 정치적 대결로만 파악하는 방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第一次禮訟은 西人 勝利, 第二次禮訟은 南人 勝利’와 같이 보편화된 勝敗論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第一次禮訟에서 채택된 것은 鄭太和 등의 國制에 의한 暮年服(長・衆不辨)이며 西人들의 古禮에 의한 暮年服(衆子服)이 아니었다. 第二次禮訟은 西人과 南人의 분쟁이 아니었으므로 南人의 勝利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들은 왕실의 배척으로 축출된 西人들의 빈 자리에 들어온 것일 뿐이었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종합적이고 통론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 주가 되어왔고, 기초적인 작은 사실들을 실증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소홀히 되어 왔다. 앞으로는 연구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각 개별 사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정리 및 그 성격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우리는 그간 禮訟을 연구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과 원리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소 성급하게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왕왕 사실과 유리된 도식적 이해 체계를 구성하는데 급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훌륭한 체계와 이론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사실의 기초 위에서만 그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좀더 기초 작업에 몰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禮訟과 같이 당쟁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반성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禮訟과 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투쟁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객관적 시각과 공평한 태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연구자가 무의식

중에 논쟁의 한편으로 끌려가거나 동조해서는 안되며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 논쟁에 대한 시비판정을 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에서는 편향적 시각이나 가치판단적 해석을 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禮訟의 쌍방은 모두 그들 고유의 학문적 정치적 전통과 입장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그 논쟁 쌍방의 학문적·정치적 배경과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할 뿐이어야 한다. 특히 黨爭史 관계의 연구에 있어서는 일방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나 비판적 태도의 절제가 엄격히 요구된다 하겠다.

(2) 禮訟은 黨爭史의 일부로서, 그 연구는 물론 植民史觀의인 자기비하와 自嘲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불식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의무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그 자체를 곡해하거나 과대평가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 인식은 긍정적 발전사관의 기초를 확립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엄격한 비판의식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비판은 물론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이다.

IV. 禮訟 研究의 方向과 課題

이상에서 禮訟과 관련하여 검토해 본 研究의 현황과 그 문제점의 반성을 통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들을 논의해 본다. 禮訟을 포함한 黨爭史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첫째, 조선시대사 연구에 있어서 정치사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의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한국사학계에서는 社會史·經濟史·思想史의 연구가 중심이 되어 정치사는 매우 소홀히 되었다. 朝鮮時代 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불균형은 政治史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전체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데도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黨爭史를 포함한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고정된 정치사 연구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그치는 통론적 서술 방법이나 극단적인 二分法에 의한 對比 서술, 조선후기의 정치사를 곧 당쟁사로 인식하여 다양한 정치적 사건들을 모두 당쟁사의 구조 안에서 서술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연구 방법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정치사의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자에 제기된 朋黨政治論 같은 것은 하나의 훌륭한 방법론적 시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池斗煥 교수의 연구에서 보여준 사상사와 사회경제사의 有機的 결합도 창의적 시도라고 생각된다.

셋째, 禮訟 연구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체계의 수립과 이론의 구성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론적인 연구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연구의 현황으로 보아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보다 기초적인 사실의 실증과 분석 작업이 선결과제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과제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개별 사안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치사 연구의 기초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학술 용어들에 대해 통일된 개념의 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禮訟의 연구가 겨우 시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미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구자들 간에 대화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에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사 관계 학술 용어의 개념 정리를 위한 학자들의 개별적인 노력과 학계 공동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思想史의 연구가 다 그러하겠지만, 조선시대 禮學이나 禮訟의 연구에는 역사 일반의 사료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儒敎經典과 古典 禮書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조예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禮訟의 논쟁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예학적 典據에 대해 원전을 확인하고 정확한 의미를 탐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禮訟과 관련하여 연구가 요청되는 과제들을 생각해 본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세부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확립하는 일이다. 전체적인 체계와 특수 이론을 세우는 일은 그 다음의 과제로 생각된다. 禮訟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연구 방안이 생각될 수 있다. 하나는 禮訟의 전 과정을 진행 단계별로 세분하여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정밀한 고증과 분석을 가하는 방법이며, 또 하나는 禮訟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의 예론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어느 한쪽 으로부터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 될 것이다.

먼저 禮訟의 진행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연구 과제가 될만한 것들을 들어 보면, (1) 第一次禮訟의 발발 요인과 그 배경, (2) 최초 논쟁(宋時烈-尹鑄)의 발단과 진행 과정, (3) 개별 예론의 학술적 논리, (4) 禮論의 정치문제화 및 당론화 과정, (5) 禮論의 전국적 확산 과정, (6) 第二次禮訟의 요인과 정치적 환경, (7) 第二次禮訟의 전개와 분쟁 구도, (8) 第二次禮訟 후의 정권 교체 과정, (9) 禮訟의 정치사적 영향 등이 있다.

다음으로 개별 인물들의 禮學과 禮論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한데, 특히 (1) 尹鑄, (2) 宋時烈·宋浚吉, (3) 許穆, (4) 尹善道, (5) 元斗杓, (6) 李維泰, (7)

柳世哲 등의 嶺南儒疏, (8) 宋尙敏 등의 예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 (4)는 禮訟의 주역들이고, 元斗杓과 李維泰는 원래 暮年說을 주장하다가 三年說로 바꾸었거나 자신들의 禮說을 수정한 사람들이다. 禮說을 수정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服制禮訟이 갖는 갈등과 문제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의미에서는 禮訟의 당사자들 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측면이 있다. 嶺南儒疏는 남인 예설의 집대성이라고 할만한 것이고, 宋尙敏의 예론은 서인들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이들은 모두 지방의 유생들이 제기한 것이란 점에서 예속의 전국적 확산을 보여주는 자료들이기도 하다. 반면 都愼徵의 상소는 第二次禮訟을 촉발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예론 자체는 별로 특별한 내용과 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禮訟의 성격을 이해하는데는 당시의 후대인들의 논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禮訟에 대한 논평들은 당시나 후대의 것이나를 막론하고 대부분 당론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각 당파의 논평을 종합해 보면 그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후대의 논평들 중에는 丁若鏞의 「正體傳重辨」과 같이 매우 중립적인 것도 있어 禮訟의 이해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¹⁵⁾ 이러한 자료들의 발굴과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結

禮訟은 조선중기 政治史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 禮訟은 또한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性理學(특히 禮學)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禮訟의 기초가 된 諸家の 禮學과 禮論은 韓國哲學史 혹은 儒學史에서도 중요한 대목을 이루고 있다. 禮訟은 조선후기의 社會史·經濟史 혹은 文學史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禮訟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진은 주로 조선시대 정치사 전반에 걸친 관심의 결여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禮訟은 그 주제가 갖는 여러가지 미묘한 성격들 때문에 좀처럼 만족스러운 연구가 이루어지지

15) 茶山의 禮訟에 대한 論評은 연구자들로부터 일찍 주목을 받아 여러번 검토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 논문들을 들 수 있다.

① 李乙浩, 〈己亥禮訟의 反論〉(『韓國哲學研究』中, 東明社, 1982)

② 李範稷, 〈丁茶山의 禮論〉(『人文科學論叢』明知大, 1987)

③ 鄭仁在, 〈朝鮮朝 禮學의 哲學의 特性〉 - 茶山의 己亥禮訟의 해석을 中心으로 - (『제1회 東洋哲學國際學術會議 發表要旨』, 11, 圓光大學校, 1990)

④ 拙稿, 〈實學者들의 禮學思想 - 星湖와 茶山을 中心으로 -〉(『韓國獨立運動史의 認識』 - 白山 朴成壽教授華甲紀念論叢 -, 1991)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해 보았다.

禮訟과 당쟁을 포함한 조선후기의 정치사 연구에 있어서는 현재의 구태의연하고 제한된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론의 개척과 인식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정치사의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학문적 연구는 이론적 체계의 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禮訟 연구의 현황으로 보아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는 이론적 체계화가 아니라 보다 기초적인 사실의 실증과 분석 작업이 선결과제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과제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개별 사안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禮訟의 전 과정을 진행 단계별로 세분하여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과 禮訟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의 예론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방법은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작업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정치사 연구의 기초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학술 용어들에 대해 통일된 개념을 정립하는 일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정치사 관계 학술 용어의 개념 정리를 위한 학계 공동의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